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

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제96호 2019년 7월 24일

항만·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연구실 △Tel.+82-51-797-4665 Fax.+82-51-797-4659 △총괄:이주호 러시아연구센터장 △감수:길광수 명예연구위원 △편집:김엄지 연구원

주요내용

통계로 보는 북방(p.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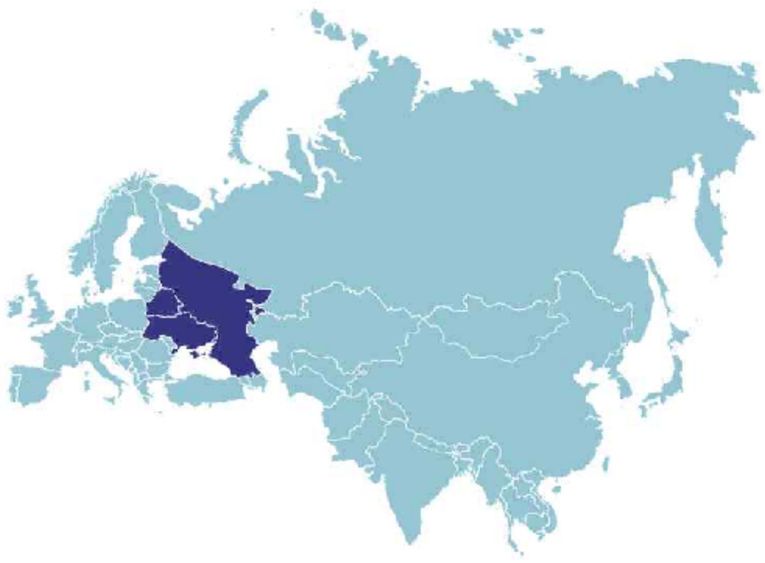
- 금년 6월 기준 러시아 총 물동량 작년 동기 대비 3.4% 감소

주요 동향(p.4)

- 동부(p.4)
  - 러시아 본토-사할린 섬 교통망 연결 프로젝트
  - 제5차 동방경제포럼, 4가지 토론주제 확정
- 중부(p.8)
  - 카자흐스탄 정부, 도로 정비 및 개발에 집중
- 서부(p.10)
  - 8월 1일부터 사베타항, 우트레니 터미널 준설 예정
  - 우크라이나-리투아니아, 오데사항 LNG 터미널 건설에 관한 MOU 체결

주요통계(p.14)

- 2019년 상반기 러시아 수역별 항만물동량



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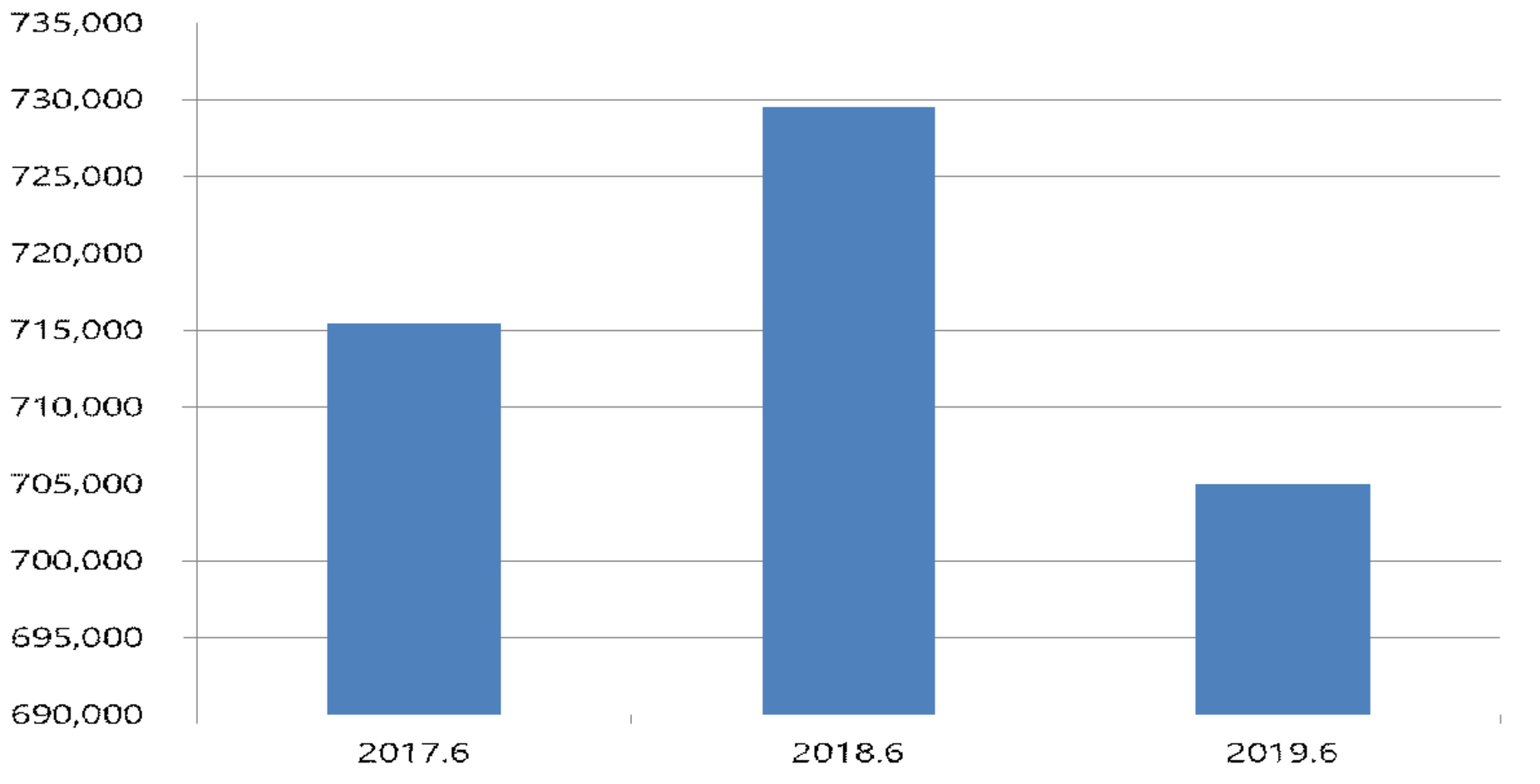
서부권역 : 러시아 서부, 우크라이나, 벨라루스 등 / 중부권역 : 중앙아시아, 몽골 / 동부권역 : 러시아 극동, 시베리아

통계로 보는 북방

▮ 금년 6월 기준 러시아 총 물동량 작년 동기 대비 3.4% 감소

2017~2019년 6월 기준 러시아 총 물동량

(단위: 천 톤)



자료: KMI 작성.

- 2018년 총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2% 증가 증가했으나, 2019년 1~6월 물동량은 작년 동기 대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

- 2019년 6월 러시아의 총 물동량은 약 7억500만 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 3.4% 감소함
  - 작년 6월 기준 해상, 철도, 도로, 항공, 파이프라인 등을 통한 러시아 총 물동량은 약 7억3,000만 톤이었으나, 올해 총 물동량은 3.4% 감소함
  - 작년 6월 기준 해상 물동량은 1억9,000만 톤이었으나, 올해 1억4,000만 톤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, 더불어 내륙수운 물동량 또한 1억6,000만 톤에서 1억

2,000만 톤으로 감소했음

- 작년 6월 기준 철도 물동량은 약 1억700만 톤이었으나, 올해에는 약 1억100만 톤으로 감소했으며, 도로 물동량 또한 작년 6월 기준 약 5억1,400만 톤이었으나, 올해 약 5억 톤으로 감소했음
- 반면 올해 6월 기준 파이프라인을 통한 물동량은 작년 동기 대비와 같은 규모로 약 8,900만 톤을 기록함

참고자료 : 러시아 통계청 자료

김엄지 연구원

051-797-4776, umjikim@kmi.re.kr

동부권역 주요 동향

▌러시아 본토-사할린 섬 교통망 연결 프로젝트

- 러시아 하바롭스크주와 사할린 섬을 연결하기 위한 건설 프로젝트가 러시아 국가 프로그램에 포함됨
  - 지난 6월 극동북극개발부 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는 동 프로젝트가 러시아 연방 교통부 종합계획에는 포함되었으나 할당된 예산이 없으며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음
  - 이에 따라 국가 프로그램 '극동발전 2025'에 포함됐으며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연방 예산 약 4,330억 루블이 지원됨

러시아 본토-사할린 섬 연결 프로젝트

자료: https://www.kommersant.ru/doc/3629756(검색일: 2019년 7월 21일)

- 러시아 본토와 사할린 섬을 연결하는 방안으로 철교와 터널 중 네벨스코이 해협을 지나는 철교 건설을 선택함
  - 철교의 길이는 약 5.9km이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될 전체 철도의 길이는 약 580km임
  - 또한 동 프로젝트에는 추가 화물 적재 및 철교 운행 준비를 위한 항만건설이 포함되어 있음
  - 현재 러시아 철도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항만 건설을 위한 가장 적합한 장소는 사할린주 이린스크 지역의 제란그랴만임

참고자료 : http://morvesti.ru/detail.php?ID=79282(검색일: 2019년 7월 21일)

https://tass.ru/ekonomika/6557473(검색일: 2019년 7월 21일)

김은미 현지 리포터(국립극동교통대학교)

051-797-4776, usea1004@gmail.com

제5차 동방경제포럼, 4가지 토론주제 확정

- 제5차 동방경제포럼의 주제가 확정됨
  -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올해 동방경제포럼의 토론 주제는 ▲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솔루션 ▲비즈니스 환경조성 ▲극동 및 아태지역 협력 기회 개발 ▲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 이상 4가지로 결정됐다고 포럼 관계자가 밝힘

- 이에 포럼기간 동안에 관련 주제로서 러시아와 각 참가국들 간의 실무회의가 진행될 예정임
  - 소식통에 의하면, 러시아-중국 미디어 포럼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행사가 제5차 동방경제포럼 개최 기간에 진행될 것으로 보임

- 러시아 외교부에 따르면, 올해 포럼에 공식 초청된 국가 정상급 인사는 아베 일본 총리, 모디 인도 총리, 칼트마 몽골 대통령, 마하티르 인도네시아 총리, 임란 파키스탄 총리 등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
  - 특히 이번 포럼에는 모디 인도총리의 방문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
  - 러시아-인도 간 경제·무역·기술·문화 협력 정부위원회는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인도 내 제2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프로젝트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이번 포럼에서 본 계약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

- 한편 콘스탄틴 보그다넨코 연해주 부지사는 올해 동방경제포럼에서 연해주정부는 연방정부와 지역 내 프로젝트 성과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
  - 보그다넨코 부지사는 아태지역 참가국 대표단과 지역 내 인프라 구축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관련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연해주 정부는 투자자 유치에 적극 노력중이라고 언급함

KMI Northern Logistics Trend Report

참고자료 : https://vladnews.ru/2019-07-09/154910/nachalsya_problemy(검색일: 2019년 7월 22일)

https://vladnews.ru/2019-07-23/155774/rossiya_indiya(검색일: 2019년 7월 23일)

https://primorsky.ru/news/163296/(검색일: 2019년 7월 23일)

전명수 현지리포터(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)

070-5044-9502, msjeon1976@gmail.com

중부권역 주요 동향

▌카자흐스탄 정부, 도로 정비 및 개발에 집중

▪ 2019년 현재 카자흐스탄 국내 도로 사정은 많이 개선된 편이며, 심하게 낙후된 도로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40%에서 12%로 감소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함

- 지난 7월 19일 진행된 국가 도로 관련 브리핑에 참석한 카자흐스탄 도로공사 카즈아브토졸(QazAvtoJol)의 울란 알리포프(Ulan Alipov) 사장은 국내 도로 사정이 지난 10년 동안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함
-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'누를르 졸(Nurly Zhol)' 국가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, 이미 도로 4,400km 구간에 총 14개의 사업 프로젝트가 실행됨
- 도로 공사 및 복구 사업 프로젝트를 통하여 약 18,000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고, 12,000 개의 기술 장비들이 투입되는 효과를 얻음
- 향후에는 남동부 알마티에서 동북부 외스케멘(Oskemen) 구간, 악토베(Aktobe)-아트라우(Atyrau) 및 러시아 국경지역까지 연결되는 구간 등 주요 간선 국도와 국경 인근의 도로 정비에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함

▪ '누를르 졸' 국가 현대화 프로그램은 카자흐스탄의 도로, 철도, 항만, IT, 교육 분야를 개발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임

- 지난 2014년 나자르바예프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며, 오는 2020년까지 4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수행될 예정임
- 아울러 약 2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, 이와 관련한 교육 인프라의 개발도 기대할 수 있음
- 누를르 졸은 총 7가지 세부적인 부문이 있으나, 이 중 운송 및 물류 인프라의 개발이 가장 우선적인 순위를 차지함
- 도로와 관련한 성과로는 2016년까지 약 600km, 2018년까지 약 400km 이상의 도로가 신설되었음
- 이외에도 약 22억 달러를 투자하여 기존 고속국도의 보수를 진행한 바 있음

▪ 카자흐스탄 도로 정비 및 개선 공사에는 해외 기관들의 투자와 지원도 행해짐

- 카자흐스탄 국가 보증 하에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과 중국수출입은행(China Exim Bank)이 탈드코르간(Taldyqorǵan)~외스케멘 763km 구간과 메르크(Merki)-부를바이탈(Burylbaital) 266km 구간 등에 지원하기로 함
- 아울러 수도 누르술탄과 경제거점 도시 알마티 간 고속국도 역시 세계적 수준으로 보수하고, 왕복 4차선으로 확장을 약속함

참고자료 : КазАкпарат ХАА (검색일: 2019년 7월 23일)

오상호 리포터(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)

031-330-4145, editor405ca@gmail.com

서부권역 주요 동향

8월 1일부터 사베타항, 우트레니 터미널 준설 예정

- 2019년 러시아 정부 예산 조정의 일환으로 사베타항 우트레니 터미널 준설사업에 38억 루블이 재배정됨
  - 러시아 정부 산하 건설부(GLAVGOSEXPERTIZA)는 지난 5월, 우트레니 터미널 준설 사업을 승인, 현재 예산 투자 배분에 대한 법적 규제 조정 중에 있음
  - 그러나 준설사업 업체와 주정부 간 계약금액 한도 등 미결정 사안들로 인해 정부의 예산 수정 초안은 집행 당국의 재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
  - 이에 러시아 연방 부총리 막심 아키모프(Maxim Akimov)는 오비만의 작업 가능 기간이 현 시점에서 약 10주 정도로 짧은 것을 감안할 때, 8월 1일 이전에 준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결의안이 합의되도록 강력히 요구함(2024년 주요 인프라 현대화 및 확장을 위한 종합계획 - 운송 프로젝트 위원회 회의)
  - 현재 준설 사업 업체는 이미 선정된 상태이며, 사업 개시 후 2주 내 특수 준설선 8척이 사베타항으로 이동할 계획임

- 노바텍의 '북극 LNG 2'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트레니 터미널 필요
  - 극동 및 북극 개발 담당 부국장인 알렉산더 크루티코프(Alexander Krutikov)는 사베타항의 우트레니 터미널 건설은 노바텍(Novatek)의 '북극 LNG 2'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한 기본 조건이며, 이 후 2024년까지 5천만 톤의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화물기지 건설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
  - 우트레니 터미널의 건설을 위해서는 2020년 연방 예산과 2021년, 2022년 예산 편성 기간 동안 약 1000억 루블 이상의 예산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
  - 이와 관련해서 2019년 2월 로스아톰(국가원자력공사)에 대한 연방 예산 추가 배정안이 러시아 대통령령으로 지시된 바 있음

- 메드베데프 총리, 지난 4월 사베타항의 경계선 확장과 노바텍의 '북극 LNG2'

프로젝트를 위한 우트레니 터미널 건설을 지시함

- 러시아 교통부는 내년 중순까지 사베타항의 경계선 수정을 위한 계획안을 준비 중임
- 사베타항의 경계선 수정으로 인해 노바텍은 북극 LNG 운반을 위해 26 척의 외국 유조선 사용과 2044년까지 북극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허가를 지난 3월 중순에 받은 바 있음

참고자료 : http://www.morport.com/rus/news/maksim-akimov-poruchil-nachat-dnouglubitelnye-raboty-v-obskoy-gube-ne-pozdnee-1-avgusta (검색일: 2019년 7월 24일)

https://nangs.org/news/business/dnouglubitelynye-raboty-v-obskoy-gube-nachnut-ne-pozdnee-1-avgusta(검색일: 2019년 7월 24일)

https://www.kommersant.ru/doc/3930372(검색일: 2019년 7월 24일)

남가영 리포터(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)

neba96@naver.com

▌우크라이나-리투아니아, 오데사항 LNG 터미널 건설에 관한 MOU 체결

▪ 7월 19일 우크라이나 항만공사(Ukrainian Sea Port Administration) 오데사 지사는 리투아니아의 석유가스 기업인 "AB 클라이페도스 나프타(AB Klaipedos NAFTA)" 사와 오데사항 LNG 터미널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정보 교환에 대해 합의했음

- 리투아니아 기업의 LNG 터미널 건설 참여 논의는 올해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리투아니아 클라이페다(Klaipėda)에서 개최된 "클라이페다 천연가스포럼(Klaipeda LNG Forum)"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바 있음
- 이호르 트카추크(Ihor Tkachuk) 오데사 지사장은 "해당 기업은 리투아니아의 석유가스 항만 환적과 천연가스 저장 및 재기화 설비건설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업으로서 양해 각서 체결은 유럽의 선진 항만경영 트렌드를 따라가는 첫걸음이 될 것"이라고 평가했음
- 또한 트카추크 지사장은 "이미 4년 반 전부터 클라이페다 항에는 LNG 터미널 및 물류 운송루트 구축과 환경오염 물질 감소 조치 등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, 대체 에너지 확보에 있어 정보교환은 필수적"이라며 리투아니아 측과의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이유를 덧붙였음

▪ 우크라이나-리투아니아 양국 기업이 참여한 양해각서는 LNG 터미널 건설부터 천연가스 생산 절차 및 규정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망라하고 있음

- 양해각서는 터미널 시설 설계, 기술 및 운영 관리 지원, 환경검사, 관련 인프라 건설 등에서의 협력을 담고 있음
- 또한 새로운 석유가스의 하역 및 환적기술 관리 평가에는 오데사 항만공사의 전문가들이 입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

오데사항에 입항 중인 가스운반선

자료: MaritimeBusinessNews.ua 2019

참고자료 : https://maritimebusinessnews.com.ua/%d0%be%d0%b4%d0%b5%d1%81%d1%8c%d0%ba%d0%b8%d0%b9-%d0%bf%d0%be%d1%80%d1%82-%d1%82%d0%b0-ab-klaipedos-nafta-%d0%b4%d0%be%d0%bc%d0%be%d0%b2%d0%b8%d0%bb%d0%b8%d1%81%d1%8c-%d0%bf%d1%80%d0%be-%d0%be%d0%b1/2019/07/19/(검색일: 2019년 7월 23일)

조용성 현지리포터(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)

+7 981-198-65-06, mirinae2929@gmail.com

주요 통계

2019년 상반기 러시아 수역별 항만물동량

(단위: 백만 톤)

수역	건화물	액체화물	합계	2018/2019년 증감(%)
극동 수역	66.46(+8.6%)	38.49(+3.9%)	104.95	+6.8%
북극해	14.91(+5.5%)	36.74(+35.3%)	51.65	+25.1%
발트해	55.5(+2.6%)	74.56(+8.8%)	130.06	+6.1%
아조프-흑해	41.67(-28.3%)	77.32(+2.7%)	118.89	-10.8%
카스피해	1.28(-7.6%)	2.21(+213.3%)	3.48	+41.1%
합계	**179.71(-4.8%)**	**229.33(+9.7%)**	**409.04**	**+2.8%**

Peter Ruzankin 연구보조원(KMI 러시아연구센터)

7-914-345-3947, aquillar7@gmail.com